

## 2024년 9월 27일 설교자 회의

본 문 : 여호수아 6장 1-7절

제 목 :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대 지 : 1. 이상한 군사작전  
2. 하나님의 군대

한문장 :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을 향한 첫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굳게 닫힌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고대도시중 하나로 일부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중 성벽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성문을 잠그고 수성을 하며 싸우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내에는 풍부한 물 자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식량역시 전쟁을 위해 **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본문 1절 말씀에서처럼 출입하는자가 없을 정도로 굳게 닫고 버티며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성할 준비를 마친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합니다. 고대 군사이론에 의하면 요새화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1) 성벽을 타고 넘는 방법; 2) 성문이나 성벽을 뚫는 법; 3) 성벽 밑에 구멍을 뚫는 법; 4) 포위하여 무너뜨리는 법; 5) 우세한 전략으로 함락시키는 법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무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었습니다. 매일 한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합성을 지르는 게 전부인 **이상한 군사작전이었던 것이죠.**

2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안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이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자, 정복전쟁을 수행할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해야할 일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지휘관에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군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선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 계획대로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문 : 여호수아 14장 6-15절

제 목 : 하나님의 약속

대 지 : 1. 믿음으로 붙잡는 약속  
2. 하나님의 때

한문장 :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합시다.

# 1

오늘 본문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되었던 열두 정탐꾼 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보고했던, 유다지파 갈렙의 요구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통해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가 갓었고, 밭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민14:24; 신1:36)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밭로 밭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통해 10명의 정탐꾼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반면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게하였다'고 대조합니다. 이 상반되는 반응은 두 그룹이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를 것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상황만 바라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 2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1세대가 모두 광야에 눕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훈련받는 그 시간동안 갈렙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5세가 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45년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갈렙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매일 흐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실 그 때가 되어 약속이 성취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한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런 갈렙의 충성과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85세의 나이, 전쟁에 나가기 적합한 나이가 아님에도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40살의 때와 같이 강건하다며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가능한 이유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여호수아 24장 14-24절

제 목 :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대 지 : 1. 본을 보이는 여호수아  
2.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

한문장 :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 1

여호수아는 세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은혜로 돌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오신 내용을 말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거슬러올라갔다가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기던 데라의 가족들 중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언약을 받을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은 다른신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절박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믿던 거짓 신들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말 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야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여호와가 좋지않다면, 지금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본을 보이며 도전을 주고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협하지 않았고, 선택지를 주었으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 행동은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 2

이스라엘의 대답인 16-18절을 통해 그들은 다른 거짓신들이 아닌 오직 한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출애굽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 보호하셨으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친히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통명스럽습니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을 섬길 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함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풍성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한번 더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본 문 : 사사기 2장 8-15절

제 목 :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대 지 : 1. 실패한 믿음의 계승  
2.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한문장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워야합니다.**

# 1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세대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각한일이 일어나기까지 오랜시간조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일과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모두 죽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기 시작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거짓 신이었습니다. 이런일이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언약하지말며, 제단을 부수라고 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 믿음의 계승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알던 세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서론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찾아 왔던 일을 바라 볼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두운 미래가 찾아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 2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12절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말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결별하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과 거짓신들 속에서 가나안화 되었고, 그들처럼 다신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거짓 신들을 받아들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밋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변 적국들에게 패배하고, 여러 고통과 재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으며, 그들이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들처럼,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세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는 것, 단 한 세대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고 :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 사사기, NAC 여호수아, 여호와와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